



“ 지켜봐주세요 ”
윤정현 광주시장 당선자가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들에게 참배하기 전 하늘을 잠시 바라보고 있다.



“ 잘하겠습니다 ”
이낙연 전남지사 당선자가 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동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분향하고 있다.

광주 초유의 1黨 독점

새정치, 시장·구청장·광역의원 ‘씩씩이’ ... 견제·감시 기능 상실 우려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주시장 선거를 비롯한 자치단체장,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을 거의 ‘씩씩이’를 하면서 ‘일당 독점’의 폐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새정치연합은 광주시장과 5개 구청장 선거에서 모두 승리했고, 전체 22개 의석인 광주시의원 선거에서도 지역구 19석 모두와 비례대표 2석 등 총 21석을 확보했다.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1석을 얻는데 그쳤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서구정장에 전주언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고, 광주시의원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이 20석, 민주노동당이 2석을 확보했다.

전략적 선택 의미 되새겨
지방의원 역할 충실히해야

따라서 7대 광주시의회는 새정치연합 일당 독식 구조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새정치연합 시의원 후보들 중 일부는 선거가 끝나기 전부터, 같은 당 소속 후보들을 상대로 상반기 의장 선거를 위한 ‘물밑 작업’을 벌이는 등 사실상 일당독점 폐해가 의회 개원 이전부터 드러나고 있다.

광주 기초의회 비례선거에서는 그동안 당선권에 후보 1명씩 밖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높은 득표율

로 기초 비례 모두를 ‘씩씩이’했다.

이처럼 광주에서 새정치연합이 지방의회까지 ‘씩씩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선거와는 달리 초정전 양상을 보였던 광주시장 선거에 새정치연합 당 지도부 등이 당력을 총동원해 파상공세를 펼치면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의 독식구조가 심화한 것은 ‘기호 2번’ ‘덧발’ 민심이 강하게 표출되고, ‘2017년 정권교체·안철수 재신임’이라는 민심도 작용하면서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소수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한 결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 일당 독점구조가 강화함에 따라 시·도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광주시장과 자치단체장 모두 새정치연합 소속인데다 광역·기초의회 등 지방의회까지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일색이기에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소수야당 후보

6·4 선택 그 후

- 시도지사 당선자 5대 과제 2
- 13명 당선 진보교육감 파워 3
- 지역 국회의원들 성적은? 4
- 진보정당의 몰락 5
- 화제의 당선자들 6
- 父女·父子 의원 탄생 7
- 野·경기·인천 패배 후폭풍 8
- 개표기 고장 ‘거북이 개표’ 10

들도 적절하게 지방의회에 진출해야 의회와 집행부 간 적절한 긴장관계가 유지되는데 새정치연합 일색이어서 건전한 비판과 견제가 이뤄질지 우려된다”면서 “지역 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을 전략적으로 선택한 의미를 되새기고 지방의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알림

제41회 光日보훈대상 영광의 수상들

11일(수) 오후 3시 시상식
정부 광주지방합동청사서

광주일보사는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41회 光日보훈대상 시상식을 11일 오후 3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갖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이영주씨(상이군경 부문·69·광주 동구 소태동)
박소영씨(중상이자배우자 부문·43·광주 광산구 수완동)
김복순씨(미망인 부문·73·광주 남구 진월동)
박인찬씨(유족 부문·69·광주 남구 농성동)
유길성씨(특별 부문·86·광주 남구 구동)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6·4 민심은 ‘견제와 균형’

광역단체장 與8·野9곳 승리

6·4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견제와 균형’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치러진 17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은 8곳,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9곳에서 승리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누리당 등 여권은 국정 운영에 최소한의 동력을 확보했으며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은 5일 새벽까지 진행된 접전 끝에 경기(남경필), 인천(유정복)에서 승리한데 이어 부산(서병수)에서 신승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모면했다. 여기에 정치적 텃밭인 대구(원영진), 울산(김기현), 경남(홍준표), 경북(김관용)에서 승리하고 제주(원희룡)에서도 낙승을 거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박원순)에서 승리한데 이어 충청을 석권, 중원을 장악했다. 대전(권선택), 충남(안희정), 충북(이시종), 세종(이춘희)에 이어 강원(최문순)

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특히 전라공천의 후폭풍이 거센 새누리당(윤장현)에서 승리하면서 한숨을 돌렸으며, 전남(이낙연)과 전북(송하진)은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다.

전국 기초단체장 226곳의 선거 결과, 새누리당이 117곳, 새정치민주연합이 80곳에서 승리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후보들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조희연), 경기(이재정), 인천(이정연), 부산(김석준), 광주(장휘국), 강원(민병희), 충북(김병우), 충남(김지철), 전북(김승환), 전남(장만채), 경남(박종훈), 제주(이석문), 세종(최교진)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이 선출됐다. 보수 성향은 울산(김복만), 경북(이영우)에서 승리하는 데 그쳤으며 대구(우동기), 대전(실동호)은 중도로 분류된다.

한편,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단 1명의 당선자를 내지 못해 사실상 몰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합승 476명 구조 172명
실종 15명 사망 289명
※ 세월호 참사 53일째
5일 오후 8시 현재 ▶ 관련기사 10면

광신대학교
사랑과 감사의 60년
1954
60th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14 Dreamcars

메르세데스-벤츠 가장 매력적인 Dreamcar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주) | 신성자동차(주) 광주 경시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지원 표준 연비 및 등급
 • C150Coup2,143cc, 1819kg, 자동7단, 배양연비 15.9km/l (도시연비: 13.5km/l, 고속도로연비: 19.2km/l), 289cc, 배양연비 12.6kg/km
 • C180Coup2,344cc, 1,905kg, 자동7단, 배양연비 15.2km/l (도시연비: 13.0km/l, 고속도로연비: 17.2km/l), 289cc, 배양연비 12.6kg/km
 • C200Coup2,344cc, 1,905kg, 자동7단, 배양연비 15.2km/l (도시연비: 13.0km/l, 고속도로연비: 17.2km/l), 289cc, 배양연비 12.6kg/km
 • C250Coup2,344cc, 1,905kg, 자동7단, 배양연비 15.2km/l (도시연비: 13.0km/l, 고속도로연비: 17.2km/l), 289cc, 배양연비 12.6kg/km
 • C300Coup3,499cc, 1,705kg, 자동7단, 배양연비 9.8km/l (도시연비: 8.2km/l, 고속도로연비: 12.5km/l), 489cc, 배양연비 18.1kg/km
 • C150Coup2,143cc, 1,819kg, 자동7단, 배양연비 15.9km/l (도시연비: 13.5km/l, 고속도로연비: 19.2km/l), 289cc, 배양연비 12.6kg/km
 • C180Coup2,344cc, 1,905kg, 자동7단, 배양연비 15.2km/l (도시연비: 13.0km/l, 고속도로연비: 17.2km/l), 289cc, 배양연비 12.6kg/km
 • C200Coup2,344cc, 1,905kg, 자동7단, 배양연비 15.2km/l (도시연비: 13.0km/l, 고속도로연비: 17.2km/l), 289cc, 배양연비 12.6kg/km
 • C250Coup2,344cc, 1,905kg, 자동7단, 배양연비 15.2km/l (도시연비: 13.0km/l, 고속도로연비: 17.2km/l), 289cc, 배양연비 12.6kg/km
 • S1803,499cc, 1,505kg, 자동7단, 배양연비 9.6km/l (도시연비: 8.4km/l, 고속도로연비: 11.7km/l), 489cc, 배양연비 18.1kg/km